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13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4.17(금)

교섭위원 교육수련회 진행

교섭역량 강화와 단결력 강화 결의



2026년 4월15(수)부터 16(목)까지, 성호리조트에서 금속노조 경주지부 교섭위원 교육수련회가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는 교섭위원 역량강화와 단결과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경주지부 각 지회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진홍 지부장 입소식 인사말에서 “교섭위원은 지회 교섭과 현안 해결, 지부 사업과 투쟁을 함께 책임지는 역할”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 투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경주지부는 함께 만든 조직의 힘으로 성장해 왔다”며 “2026년 투쟁도 단결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수련회는 금속노조 투쟁방침과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강지현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금속노조 투쟁방침을 중심으로 산별교섭 구조 속에서도 기업별 교섭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짚고, 교섭과 조직, 투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강의에서는 박근태 전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을 통해 AI 발전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확산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고용 및 노동조건 보호 대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날에는 정진홍 경주지부장이 '2026년 지역연대투쟁과 경주지부의 역할'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했다. 정지부장은 정세변화와 산업 전환 속에서 매각과 노동탄압 등 다양한 거시적 투쟁 과제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연대의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고 노동조합 활동의 저변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번 수련회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교섭위원 간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고 조직의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섭위원들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투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과 지부가 함께하는 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단결된 조직이 힘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공유하며, 향후 교섭과 투쟁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주지부는 이번 교육수련회를 통해 교섭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교섭과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4.19 가족등반대회 **금속노조경주지부 조합원참여사업**

일 시 : 2026년 4. 19 (일) 09시 ~ 14시 (※우천시 취소예정)
 코 스 : 포석정 출발 - 금오정 도락 후 하산 (의양자 금오봉)
 뒤풀이 (점심식사): 경주 삼릉 고양 손말국수 (경주시 배동 821-1번지)
 집 결 지 : 경주시 배동 476-2 (포석정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개별
 참가대상 :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 및 가족
 접수기간 : 2026. 03. 26 ~ 04. 13
 접수방법 : 각 지회 조직부 신청 후 지부 조직부 출발 취합
 문 의 : 경주지부 조직부장 이광우 010-6526-6833
 권형구 010-2984-9319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일시: 2026년 4월 19일(일) / 09시
 장소: 포석정 공영주차장 집결

